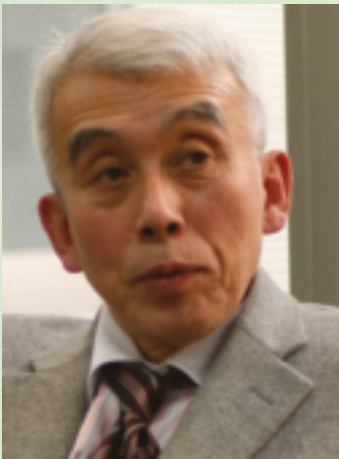


5월, 새로운 문명을 향하여!

정성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31년 전 5월. 빛고을은 저항, 민주주의 공동체였다.

권력을 찬탈한 일부 정치군부세력은 권력의 완전 찬탈을 위해 광주 시민의 목숨을 내놓은 저항에 총칼로 시종했다. 자기 한 몸보다는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에 몸 바치는 것을 우리는 '의로운 항거'라고 한다.

광주 시민, 민중의 의로운 항거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 모습은 공동체였다.

학생, 구두땀이, 교사, 상인, 가정주부, 노동자, 농민... 이름 없는 민초들이 함께 먹고 자고 나누고 위하며 오직 한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사수하였다.

오늘, 우리의 5월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나?

자본의 세계화. 자본의 광풍.

사람 냄새는 희미하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인류, 민족, 계급, 계층이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노동력 파는 사람, 일자리 없는 사람으로 짝 갈라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미·중 1.5체제하의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냉전(?), 새로운 분단질서(?)가 조성되고 있는 듯하다.

전 지구적 차원의 생명 위기!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이라 하지 말라. 하늘이 죽어가고 물이 죽어가고 있다. 하늘, 땅, 물이 죽어가는 데 못 생명인들 온전하라.

지난 일요일은 참으로 화창한 날씨였다.

서울 도봉구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을 두어 시간 거닐었다. 그 곳에서 정말 놀랍게도 나는 꿀벌 1마리와 나비 3마리만을 보았을 뿐이다.

신문, TV는 여의도 벚꽃축제에 하루 150만 명이니, 200만 명이니 했지만 사람과 벚꽃만 있지 벌, 나비가 없다.

이게 어디 보통 일인가? 우리의 5월은 어디로 가야하나?

민주주의, 공동체, 통일로 가야 한다. 민주주의 심화, 민주주의의 생활화로 가야 한다. 저 오만한 돈의 지배력을 거부하고 사람이 스스로의 존엄함을 드러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굳건하게 나아가야 한다.

도대체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말은 무엇인가? 무한 경쟁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무한 탐욕, 자본의 세계화에 민주적인 통제를 가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은 성역이 아니다. 성역이라고 하면 돈과 물질에 완전 종속하겠다는 뜻이다.

호혜경제와 공동체를 위해 저항하고 창조하고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토대를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5월은 어디로 가야하나?

함께 잘 살기 위한 길로 가야한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로 가야한다.

민족의 평화, 민족의 하나 됨,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으로 가야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길로 가야한다.

큰 것은 위태롭고 작은 것은 아름다우며 적당한 것은 좋다.

우리가 갈 길은 적당함이란 중간 역을 경유하여 작은 것으로 가는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골목상권의 보호. 거대 유통자본이 떡 버티고 있는 한 공염불이다.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는 곧 화석연료의 대량연소이며 쓰레기 문제의 전 지구화이고, 지구적 차원의 자원고갈이다.

어떻게할 것인가?

생각을 바꾸자! 생명의 세계관, 평화의 가치관으로.

생명은 절대가치이고 평화는 절대조건이다.

생활을 바꾸자! 단순, 소박한 생활. 작고 적당한 것으로.

아파트 평수, 자동차 크기를 줄여야 한다. 토건자본의 끊임없는 거품 홍보에 속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바꾸자! 독점과 차단의 사회를 공존과 순화의 사회로 변혁해야 한다.

문명을 바꾸자! 이 거대한 문명을 어찌 할 것인가?

살 길과 죽을 길의 갈림길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민주주의 심화.

모든 생명과 함께 사는 지구 공동체로 거듭 나기 위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살 길로 나아가야 한다. 